

“세정 협력” 광주국세청-세무사회, 소통간담회

국세행정 발전·세정운영 협력방안 논의 “실질적 세정지원 강화” “공정과세 실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간부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용 계좌 신고, 감면 업종 확대 등 확인, 세무대리인 전담장구 개설 등을 건의했다.

김성후 세무사회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세정지원 강화와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 뒤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광주국세청과의 소통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협조와 도우미에 감사하다”며 “광주세무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공정과세를 실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광주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본청과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변용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간부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광주국세청 제공)

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전남 '전국 최다' 기록 보험료 90% 지원 자부담 완화 효과

전남도가 농업인 자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한 결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도가 28일 농협 손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남지역 배 가입 대상 면적 2400ha 중 90%에 달하는 2157ha가 보험에 가입됐다. 가입률 역시 전국 평균(74%)보다 16%나 높았다.

시·도별론 전남이 2157ha로 가장 높고, 충남 2025ha, 경기 1478ha, 경북 593ha, 전북 426ha, 울산 356ha, 충북 148ha 순이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률을 높여 재해보험에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는 총 246억원(국비 119억·도비 30억·시군비 69억)으로 이 중 자부담금은 28억9000만원이다.

배 보험가입자는 열매숙기(적과) 전 저온 피해(냉해)와 태풍 등에 의한 낙과, 나무 찢어짐 등의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무안에서 배를 재배한 한 농가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태풍에 의한 낙과 피해를 입어 농가 부담금(213만원)보다 13배 많은 2844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우박·서리·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농업을 경영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현대삼호중 신현대 사장, '1회용품 ZERO 챌린지' 동참



환경부 주관 릴레이 캠페인...다음 주자로 송하철 목포대 총장 지목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신현대 사장이 ESG 경영 실천과 1회용품 줄이기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범국민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신현대 사장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번 챌린지는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자제와 대화용품 사용 생활화를 적극 홍보함

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적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신현대 사장은 챌린지를 통해 ▲일회용 컵 및 페트병 사용 감축 ▲다회용 컵 및 텀블러 사용 ▲작업 현장의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친환경 소재 도입 등을 약속했다.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는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신현대 사장은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1

회용품 절감에 적극 동참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자원 순환 및 환경 보호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페트병이 원료인 재활용섬유로 만든 작업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평소에도 폐기물 및 환경오염물질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주요 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플라스틱 제품 대체용 및 시멘트 소성 대체연료로 재생산하는 시설을 가동했다. 지난해 9월에는 업계 최초로 ‘고철 순환자원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환경 보호와 자원 재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민주당 광주시의원들 “철 지난 색깔론·이념몰이 중단해야”

“용도 폐기된 이념 논쟁 다시 등장한 것에 안타깝고 슬플 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은 28일 “용도 폐기된 이념 논쟁이 다시 등장한 것에 안타깝고 슬플 뿐이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더 이상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깎아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를 표적 삼아 이념 갈라치기 하려는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단 한 마디도 못하더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시계가 박정희 유

신, 전두환 5공으로 거꾸로 돌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제기한 ‘정율성 논란’과 국방부의 흥분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흥남매지 철거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을 언급한 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왜 지금,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율성 논란에 대해선 “광주는 노태우 정부부터 이어져온 한중 친선과 문화교류를 충실히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며 “결코 정율성 선상을 영웅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감추려는 비열한 술책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정략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슬비 기자

‘학교폭력 막자’...광주경찰, 시교육청과 실무자 공동연수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실무자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새 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과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체육예술 인성교육과장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연수 참가자 50명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응책으로 제시된 ‘통고 제도’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또 경찰서 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사례 발표, 청소년 범죄 대응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방안, 교육청 관계 회복프로그램 활성화, 아동 학대 사전 처리 관련 정보 공유·의견 청취 등도 논의했다.

서선욱 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3 나단 73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황선복 (640610-1466516)
 최 후 주 소 : 광주 서구 마재로 21, 104동 1510호(금호동, 중흥아파트)

위 망 황선복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8월 29일

공 고 인 : 황준태, 황효민
 주 소 : 광주 북구 상촌로 42, 304호(양산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8월 22일
 공 고 기 간 : 2023. 8. 29 ~ 2023. 10. 29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통번역 129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원은 근무 시간엔 야근 의무에
 생활 속의 위기를 살핀으로 기쁨과 근심 모두 행복해옵니다.

국민이여! 상생의 길을 걸으십시오.